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2023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강재선

심리학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지도교수 천성문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3년 8월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강재선

이 논문을 강재선의 심리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8월 18일



주 심 철 학 박사 주 동 범   
위 원 교육학박사 박 은 아   
위 원 교육학박사 천 성 문 

# 목 차

Abstract .....	v
<b>I. 서 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8
<b>II. 이론적 배경 .....</b>	<b>10</b>
1. 청소년의 부모상실 .....	10
2. 청소년의 부모상실 선행연구 .....	13
3. 질적 메타분석 .....	14
<b>III. 방 법 .....</b>	<b>17</b>
1. 질적 메타분석 .....	17
2. 연구대상 및 절차 .....	18
3. 자료분석 .....	22
<b>IV. 결 과 .....</b>	<b>25</b>
1.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	25
2. 청소년 부모상실 경험 .....	27
3. 부모상실로 겪는 어려움 .....	31
4.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 .....	42

5.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 .....	50
V. 논 의 .....	59
참고문헌 .....	67
국문초록 .....	81
부 록 .....	82
1.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4) 문항지 .....	82



## 표 목 차

표 1. 본 연구 질적 메타분석 연구절차 .....	19
표 2.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	24
표 3.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	25
표 4. 주제 분석 결과표 .....	28
표 5. 분석 대상 연구들 간 해석 .....	29



# 그림 목 차

그림 1. 분석 대상 선정 과정 ..... 21



A Qualitative Meta-Analysis on the  
Experience of Parent Loss in Adolescents

Jae-Sun Kang

Department of Applied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Seong Moon Ch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on the experience of parental loss among adolescents in Korea. The analysis included 18 Korean journals listed in KCI from 2007 to 2022. By analyzing the selected literature, we derived a total of three stages of adolescents' experiences with parental loss, which we named 'difficulties with parental loss', 'coping process after parental loss', and 'growth process after parental loss'. The stages were then divided into seven components: the bottom of despair, relative deprivation in daily life,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in reality, the experience of a fateful new relationship, inappropriate escape behavior in psychological crisis, and being present in reality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process of growing up after parental loss. In the discussion, based on the identified factors and statements, the experience process of adolescent parental loss was described and discussed according to each core concept.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parental loss and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counseling field for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parental loss. Based on thi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 loss of parent, qualitative meta-analysis*



# I.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상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대상으로 질적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부모상실 경험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 문제와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다.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방영된 종합편성채널 “금쪽같은 내새끼”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모친을 잃은 충격으로 집에서 9개월째 은둔생활을 하는 영재반 우등생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연, 부모 이혼 후 방치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중학생 사건(연합뉴스, 2020.6.11.), 부모이혼을 소문낸 친구를 극단적으로 살해한 초등학생 사건(인사이트, 2019.12.28.) 등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이 삶에서 얼마나 큰 외상 사건과 고통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93,232건이며 이혼가정의 42%가 미성년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1명인 이혼 가정이 20,641가정, 2명인 이혼가정이 15,159가정, 3명 이상인 이혼가정이 3,104가정으로 적어도 한 해 동안 미성년 자녀 60,271명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 또한 2021년 한해 사망자 수는 317,680명이며, 이 중 유배우 사망자가 142,15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4.7%를 차지한다. 142,155명 중에서 청소년기 자녀를 두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40, 50대는 16,706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 이러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매년 7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부모상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사별,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 학업 문제, 또래와의 갈등,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목표상실, 학교폭력,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다양한 상실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외상 사건은 가족이나 의미있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관계 상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현미, 정민선, 2014), 성인기 이전에 겪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은 성인기의 경험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박선정, 2015). 이처럼 부모상실은 성인기까지 정서적 고통이 이어지거나 만성화되어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부모상실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부모상실은 시기의 차이일 뿐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될 생의 발달과정 중 일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발달과제를 수행해내는 특정 시기의 청소년기에 경험한다면 생애발달과정 상의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닌 삶의 치명적인 사건 즉, '외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박선정, 정규석, 2016). 이처럼 부모상실 경험의 대상자를 청소년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한다.

청소년기는 아직 심신이 성장하고, 학교, 가족, 또래관계 속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며, 질풍노도로 대변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많은 고민과 적응을 요구하는 시기이다(김정한, 김성순, 이동훈, 함경애, 2014). 부모와 또래관계에서 상충된 사회적 요구로 인해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지녀온 자기상, 역할대응방식, 능력, 가치들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갈등을 경험한다(정현숙, 서동인, 2007). 더욱이 청소년기는 심리·사회

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기 쉽고(최현아, 송현주, 2017), 그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고민과 함께 인간이 처음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며 일관성 있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기라고 하였다(Habermas & Bluck, 2000).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상실 경험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부모상실 경험에서 유발된 안전감의 결핍으로 정체성 형성 과정이 손상될 수 있다(Freeman, 2005; Worden & Silverman, 1996).

이처럼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청소년기 자신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가족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또한 부모나 사회에서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기대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좌절감이나 무력감을 억압하게 된다(윤운영, 유금란, 2018; Fiorini & Mullen,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며(우현주, 2012),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상실 경험 후의 반응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Burns, 2010).

청소년들은 또한 자신의 감정과 사고가 너무 특별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즉, 부모상실 경험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감정과 어려움을 내면화함으로써 상실의 감정을 복잡하게 전달하거나, 신체화나 우울, 정서 조절 곤란, 자살, 자해 같은 문제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슬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른들은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겉모습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부모와는 분리-개별화가 이루

어지고, 또래와는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나(Nelis & Rae, 2009), 여전히 부모는 청소년에게 안전기지로 남아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발달은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Coleman & Hendry, 2006), 또래 애착의 형성과도 관련이 있어 부모 애착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Kerns et al., 2006).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기에 부모 애착이 감소하지 않고, 청소년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한다(김은경, 김순규, 2015)고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중·후기에도 부모 애착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 상실 이후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는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들의 부모상실 경험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연구 방법 중 대상자의 경험과 적응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로는 질적연구가 적절하다. 부모상실에 관한 질적연구는 대상자가 상실 직후부터 겪게 되는 어려움과 회복, 성장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부모의 사별이나 이혼을 경험한 부모상실에 관한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부적응적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남영옥, 이상준, 2009; 박효실, 2002; 서지영, 2002; 주소희, 2004), 주로 한부모 가정(김오남, 2005; 전미영, 2000; 정현숙, 서동인, 1997; 조성연, 2003)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상실 경험(양성은, 2008)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다. 청소년 대상의 상실 연구로는 부모 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기경희, 2014; 허윤영, 2012), 부모상실한 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정 탐색(김정남, 2015; 서청희, 이성규, 2021), 관계상실 외상 경험(김민경, 2017; 윤윤영, 유금란, 2018;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연

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상실 후의 삶의 경험과 의미(박영희, 김영근, 2022) 등 다양한 관점으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청소년 부모상실 관련 경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자살 유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김영아, 변재원, 2016), 사별 가족 연구 동향(차유림, 2014), 한부모가정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조선화, 2012), 애도경험 및 애도상담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남수현, 2022) 등이 그 예다. 특히 조선화(2012)의 연구는 연구방법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부모상실 관련 질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 청소년 자녀를 이해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연구동향을 파악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황분석에 가까우며,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과 관련된 각각의 중요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질적 연구는 연구 편수가 제한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여 청소년들이 부모상실 경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해를 명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형미정, 2020). 이러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이 제공하는 개별 함의들을 연결해 볼 수 있다면 청소년기 상실이라는 경험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내에서 청소년기 부모상실 경험을 종합하여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을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진 청소년기 상실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청소년기 부모상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도와 향후 치료와 예방적 접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상실 과정에서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체화된 질적인 요인들에 대해 연구한 개별 연구물들을 종합 분석하는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의 연구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물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방법으로, 개별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들을 종합 및 비교 분석하여 설명적인 해석과 일반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류진아, 방은진, 신혜민, 2021). 이를 통해 청소년기 부모상실 경험에서의 삶의 의미와 대상자를 모두 포괄하는 성장 경험의 핵심을 고찰하고 통합적인 이해와 함께 상실로부터 극복하고 성장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 그들의 특성과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여 이를 종합하여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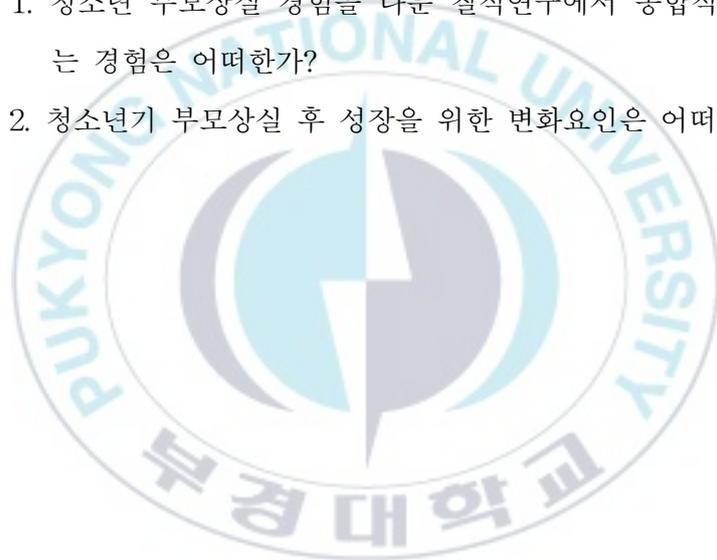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상실 경험과정에 대한 개별 연구물을 질적 메타분석하여 기존 연구물들이 제시하는 연구 결과로부터 축적된 지식보다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보다 생생하고 체계적인 이해로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회복을 위한 상담적 개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상실을 겪은 경험 및 성장 과정 속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료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 부모상실 경험 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성장 및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 부모상실 경험을 다룬 질적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기 부모상실 후 성장을 위한 변화요인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부모상실 및 질적 메타분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가. 청소년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이르는 말로써 법령과 연구에 따라 연령을 규정하는데 차이가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9세에서 24세 사이로 정의하였다. 또한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기가 끝나는 12에서 13세에서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22세에서 24세 사이를 청소년기로 본다(김춘경, 이수연, 최웅용, 2005).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선행연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만 9세에서 24세 사이를 청소년이라 정의한다.

#### 나. 부모상실

상실이란 소중한 대상을 잃어버리는 것, 즉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 이별과 같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 발생하는 경험이다(최선재, 2011). 특히 성인기 전의 부모 상실(죽음, 이혼 등)은 치명적인 외상 사건이며(윤명숙, 김남희, 2013) 이러한 상실 경험은 삶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허윤영, 2012).

본 연구에서 부모상실은 인간의 다양한 상실경험 중 관계상실과 죽음관련 상실에 해당하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상실경험으로 정의한다.

#### 다.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Sandelowski, Docherty과 Emden(1997)은 질적 메타분석을 질적 연구결과들과 통합하고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이론, 거대 내러티브, 일반화, 해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Walsh과 Downe(2005)은 질적 연구를 종합해 기본적인 가정, 다양한 설명에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질적 메타분석은 개별 질적 연구물을 종합하는 다수의 연구물이 사용하고 있는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상실, 청소년의 부모상실 선행연구, 질적 메타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부모상실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James & Gilliland, 2004)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애착과 분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실과 슬픔은 모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홍구화, 2010). 상실의 일반적인 반응은 애도이며, 이는 어떤 중요한 대상을 잃었을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으로 죄책감, 수치심, 외로움, 공포, 절망, 무기력감, 깊은 슬픔과 같은 정서로 경험되어진다(Anderson & Mitchell, 1983).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회집단이자 공간으로 삶의 기본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 또한 청소년이 자아 정체감과 인격을 형성하고 사회 적응력을 기르는 데 큰 영향을 주며, 가정 내에서 부모와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가운데 심리·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사별, 이혼, 별거와 같은 부모상실 경험은 가족 스트레스를 촉발하여 이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존중감, 가족 안의 역할 등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선정, 정규석, 2016). 특히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되면 성인보다 더욱 큰 정서적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기경희, 김광수, 2016). 부모라는 밀접한 애착관계의 상실은 청

소년들에게 큰 스트레스 및 난관으로 인식될 수 있고, 충격적인 상실사건으로 잔재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남영옥, 2010; 신연순, 2008;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Sofka, 1997).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자아가 성장 중이고 대처 기술 또한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실에 특히 취약할 수 있다(윤운영, 유금란, 2013). 이처럼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사별, 이혼, 이별 경험은 미쳐 성인기로 들어서기 전인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심리적 위협이 되며, 성인기 경험보다 더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안현의, 2005).

부모 상실은 부모 사별과 부모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실 경험은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단계(차유림, 2012)의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취약할 수 있다. Leist(1979)는 부모와 가족 상실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외상이라 하였고 윤명숙, 김남희, 최혜정(2013)에서도 부모 사별 및 이혼으로 인한 부모 상실은 청소년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치명적인 외상 사건으로 보았다.

부모의 죽음은 상실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넘어서 오랜 시간동안 지속해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부모 상실로 인한 슬픔과 함께 변화된 새로운 가족 구성원 속에서 적응해야 하는 이중 적응구조를 갖는다(허운영, 2012). 이러한 어려움으로 부모 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학업 저하를 겪고(오승환, 2001) 성인이 되었을 때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비행을 일으킬 확률이 높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Hughe s, Clark, Schaefer-Hernan, & Good, 1994).

또한 부모이혼을 경험한 청소년 자녀들도 상실감을 겪으며 발달 단계적, 심리사회적 불균형을 가져와 성인기까지 심각한 외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icks, Hjern, Gunnell, Lewis, & Dalman, 2005; Tyrka, Wier, Price, Ross, & Carpenter, 2008). 부모이혼은 청소년기에 경험

하는 대표적인 상실 경험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 중 한 명 혹은 부모 두 명을 모두 상실하거나, 이혼에 따른 가정 및 사회경제적 변화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 간의 갈등과 친인척과의 관계 변화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윤명숙 외, 2013).

반면에 상실을 경험한 개인의 극복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친밀감을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깨달아 변화하기도 한다(임선영, 권석만, 2012).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명숙 외, 2013)에서 대학생이 부모의 사별이라는 매우 심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에 대하여 감사가 높아졌다. 또한, 정서적 성숙, 자기효능감 증대, 대인관계 능력 발전 등 개인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면에서 긍정적으로 자기 삶을 재구조화하는 단계를 통해 외상 후 성장을 드러낸다고 보고했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상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사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심리적 측면에서 더 성숙하며(Balk & Corr, 2002) 형제애, 책임감, 자립심,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이필금, 2001)도 있다. 또한 이혼가정 자녀의 80% 정도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잘하며(Hetherington & Kelly, 2002) 부모이혼 후 더 나은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Amato, Loomis, & Booth, 1995; Hetherington, 1999).

이처럼 부모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상실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상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에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2. 청소년의 부모상실 선행연구

부모 상실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사건을 말하며 부모 상실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인의 부모 상실 경험을 다룬 연구(김경희, 2021; 김순례, 김병석, 2020; 지은, 유다은, 2019; 최인희, 김현주, 2017), 부모상실을 경험한 유아의 미술, 놀이치료 연구(곽효정, 2002; 김유경, 2009; 이여진, 한경아, 2019; 정석진, 2017), 청소년 부모 상실 경험을 다룬 연구(박영희, 김영근, 2022; 서청희, 이성규, 2021; 이명훈, 2022; 최경일, 2007; 황종인, 김영근, 2018)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

청소년 부모상실과 관련한 비교적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죽음은 기억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공포감으로 다가와 잊히지 않고(서청희, 이성규, 2021) 충분히 슬퍼하지도 위로받지도 못하고 억압되거나 회피로 지연된 애도 과정을 경험한다고 하였다(곽지영, 서미아, 2022; 서청희, 2022). 부모이혼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 이명훈(2022)은 이혼 전, 후의 심한 갈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고 ‘분노’, ‘공격성 반응’, ‘우울감’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상실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실감을 느끼며 고통 속의 힘든 애도 과정을 겪게 되는 적응과정을 거친다. 이와 반대로 긍정적 관점으로 부모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 죽음 이후 삶에 대한 감사 증가와 정서적 성숙, 자기효능감 증가, 대인관계 능력 향상 등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긍정적 연구 결과도 있다(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현, 2009; 윤명숙 외, 2013;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Tedeschi & Calhoun, 1996). 이처럼 부모상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보고 되듯이 이혼 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해 자존감, 우울, 불안, 공격성 등 개인적

특성과 학교 특성에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이혼가정 자녀들 중 자존감이 더 높고, 학업성취, 대인관계 등 적응력이 우수한 자녀들도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장덕희, 이경은, 2011; Harby, 2004).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의 감정과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된 질적 연구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질적 연구물 특성상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결과물들을 통합적 분석 방법인 질적 메타분석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질적 메타분석

#### 가.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어느 특정한 시기나 사건의 사회 현상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자 할 때 적합한 연구 방법으로(김영순 외, 2018) 상황과 맥락, 행위자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 등에 초점을 두으로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해 준다(김영천, 2016). 이런 면에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는 다른 연구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서영은, 2015).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조금씩 활용되기 시작하여 양적 연구의 한계점을 질적 연구가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 증가하고 있다(서영은, 2015).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현상학,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가 있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시각에서 현상을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지만(김미숙, 2005) 동일

한 주제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개별 연구의 재정적, 시간적, 인적, 물적 제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나장함, 2008a). 질적 연구물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방법이 질적 메타분석이다(Sandelowski & Barroso, 2003).

## 나.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유사한 주제의 개별 질적 연구물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장적 해석, 새로운 이론의 생성 등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Walsh & Downe, 2005). Stern과 Harris(1985)가 질적 연구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모델이나 이론을 개발하면서 ‘질적 메타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Walsh & Downe, 2005) 국내에서는 나장함(2008)이 질적 메타분석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의 정리물이라고 볼 수 있는 질적 메타분석(김명희, 2021)은 질적 연구물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질적 연구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보다 학문의 정서적 발견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Sandelowski et al., 1997).

질적 메타분석은 원인과 효과성, 결론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인 양적 메타분석과 다르게 해석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라 볼 수 있어(Walsh & Downe, 2005; Zimmer, 2006) 체계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적 메타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을 모두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검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질적 메타분석에서의 가장 큰 위협이라 볼 수 있다(Cooper, 1989). 질적 메타분석은 연구 초기인 만큼 명

칭이 통일이 통일되지 않아 질적 메타종합(Qualitative Meta Synthesis), 질적 메타합성(Meta-synthesis and Meta - ethnography), 질적 메타통합(Meta Synthesis of qualitative), 질적 메타분석(qualitative meta-synthesis)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이은봉, 2019)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이 대한 질적 연구물의 새로운 종합적 해석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Noblit과 Hare(1988)의 7단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한 질적 연구물 모두 KCI 등재(우수등재) 학술지로 제한하고 다른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 Ⅲ. 방 법

본 장에서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질적 메타분석, 연구대상 및 절차, 자료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 1.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단일 연구의 제한된 관점을 넓히고, 유사 주제를 다룬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를 다룬 개별연구에 한층 확장된 해석을 제공하며 새로운 이론의 생성과 개별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 모형을 개발하려 한다(Wash & Downe, 2005). 즉, 질적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를 다룬 개별연구들을 하나의 연구로 종합함으로써 구체적인 설명을 도출해내는 연구방법이다(Zimmer, 2006). 이러한 질적 메타분석은 유사 주제의 개별 질적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각각의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질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나장함, 2008a). 또한 인간행동의 맥락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적인 자료를 통해 변화과정을 풍부하게 설명하여 중요한 의미를 공유한다(Sandelowski & Barraso, 2007).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 연구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의 메타분석 연구와 차이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새로운 해석, 일반화를 통해 연구의 효용을 높이고 있다(Levitt, 2018). 미국학교 인종차별 폐지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의학, 간호, 교육, 보육,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실시되고 있다(김용수, 이훈, 2020). 국내에서는 비자살적자해 경험, 상담사 소진, 외상 후 성장, 유아 창의성 교육(김수진, 서한

나 2022; 류진아, 방은진, 심혜민 2021; 주인석, 김명찬, 이현진 2020; 한안나, 황희숙 2023)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한 질적연구를 대상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은 부모상실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개별 질적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 및 통합함으로써 연구 및 실제적인 상담 장면에서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절차

질적 메타분석은 개별 연구 결과들을 축소 시키지 않고 개별의 결과들을 해석적 가능성을 확장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Sandelowski et al.,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blit과 Hare(1988)가 제시한 개별연구물에 대한 해석적 종합·분석 방법을 통한 질적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과정은 ① 시작하기, ② 초기 관심사 관련 연구물 검색과 선정하기, ③ 개별 연구물 읽기 및 분석, ④ 연구물 간의 관련성 찾기, ⑤ 연구물 간 연관 분석하기, ⑥ 해석종합하기, ⑦ 종합내용 표현하기의 총 7단계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절차는 아래 제시된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질적 메타분석 연구절차 및 본 연구의 연구절차**

단계	연구절차	본 연구
1	시작하기(연구 주제와 연구문제 정하기)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을 연구 주제로 설정
2	초기 관심사 관련 연구물 검색과 선정하기	‘청소년’, ‘상실’, ‘청소년 상실’, ‘부모 상실’, ‘부모이혼’, ‘부모자살’ 등의 키워드로 문헌을 검색하여 분석 대상 논문 18편 선정
3	개별 연구물 읽기 및 분석(주제, 개념정리)	자료코딩 및 범주화
4	연구물 간의 관련성 찾기	연구간 상호 비교, 분석
5	연구물 간 연관 분석하기	결과 도출
6	해석 종합하기	종합적 결과 도출
7	종합 내용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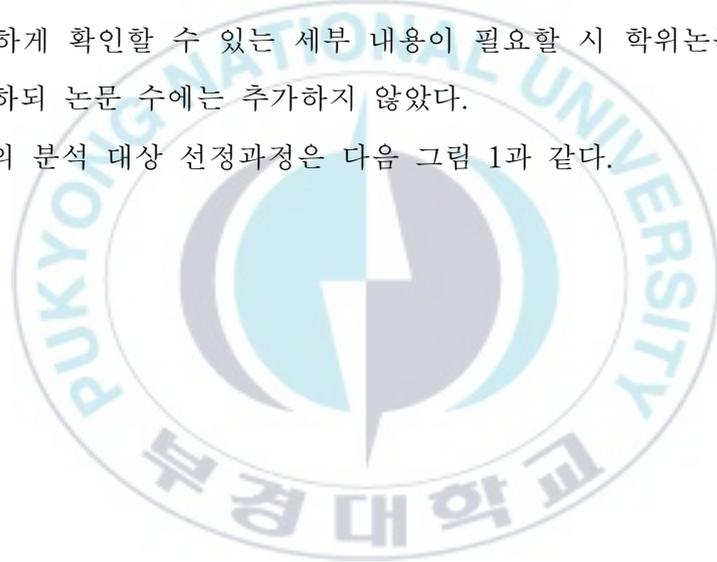
### 가. 분석대상 연구의 선정 및 과정

본 연구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을 주제로 한 질적 연구 총 18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문헌 선정은 다음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질적연구를 찾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DBpia,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논문검색 서비스(e-article)를 이용하였다. ‘청소년’, ‘상실’, ‘청소년 상실’, ‘부모 상실’, ‘부모이혼’, ‘부모자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연구 대상 목록을 선정, 검토하였다. 부모이혼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 가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연구들을 다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5,058편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초록과

주제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색을 통해 선정된 논문 중 중복논문 3,844편을 제외하였다. 중복문헌이 제외된 논문 중 주제 부적합, 질적 연구가 아닌 논문을 1,114편을 제외하고 학위/학술 중복, KCI 후보, 미등재 논문 56편을 제외하여 4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 중 대상의 나이가 청소년이 아닌 논문, 상실 대상이 부모가 아닌 논문, 축어록이 미기재된 논문 26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목표의 진술과 질적 방법의 적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논문 18편을 선정하였다. 셋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결과 중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필요할 시 학위논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논문 수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선정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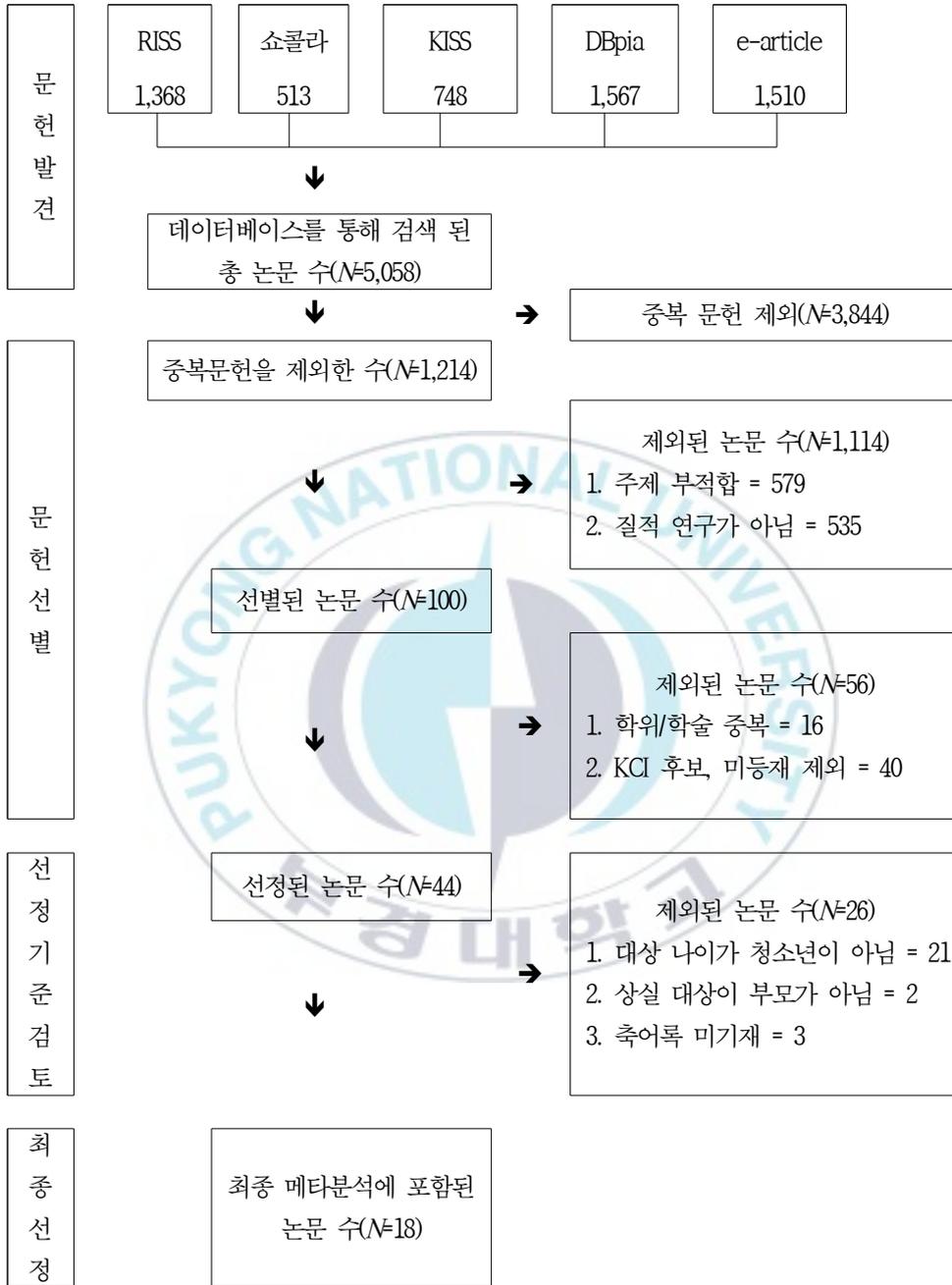


그림 1. 분석 대상 선정과정

### 3. 자료분석

선정된 문헌을 연구자, 출판년도, 연구제목, 연구방법, 연구대상, 주요결과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각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주제와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Sandelowski과 Barroso(2007)가 제시한 연구결과의 개념적 범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분류 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연구간 비교를 위한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유사주제와 개념으로 묶어 분석 대상 논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메타분석 결과의 충실도 강화를 위해 분석 논문이 연구 문제의 범위에서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분석 논문에 충실한 범주와 의미 단위를 도출해 결과의 근거를 높이고자 하였다(Levitt, 2018). 메타연구의 성격상 주제에 대한 다각도 관찰이 필요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해야 하므로 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나장함, 2008) 분석팀은 적어도 3명의 질적연구 수행자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정숙,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와 질적 메타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심리전공 교수 1인,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질적연구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으며 상담 관련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 2인,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감사자 1인이 자료 분석의 절차에 따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대면 회의 10차례의 분석 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자들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분석 대상 논문을 확인한 후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각 연구물의 통합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 가.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질적 메타분석은 선정된 개별 질적 연구물들의 질적인 평가가 질적 메타분석의 질을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 하지만 질적 연구물들을 평가하는 연구방법론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행 질적 메타분석 연구자들 간에 선정된 연구물에 대한 질 평가에 대한 이견이 많다(나장함, 2008b). 대부분의 질적 메타분석에서는 질 평가에 따른 결과 때문에 선정된 연구물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 질적으로 좋은 연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고 그 기준도 바뀌므로, 방법론상의 결함이 있는 연구물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질적 평가는 특정 연구방법론이 유사한 영역에 관한 이해를 돕는 참조 도구로만 활용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Paterson & Canam, 2001).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분석에서 질적 연구물의 평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14)을 사용했다. CASP는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질적연구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Sandelowski et al, 1997).

질적 연구물의 평가를 위한 질문으로 ‘연구의 목적 진술이 얼마나 명확한가?’,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한가?’, ‘연구목적에 다루기에 적절한 설계인가?’, ‘모집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 ‘연구자와 참가자 간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 ‘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와 같은 대표문항 10문항과 대표문항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이 함께 있으며, 문항에 대한 답으로는 예, 아니오 또는 무응답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질적 연구물의 평가를 위한 질문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구분	연 구 1	연 구 2	연 구 3	연 구 4	연 구 5	연 구 6	연 구 7	연 구 8	연 구 9	연 구 10	연 구 11	연 구 12	연 구 13	연 구 14	연 구 15	연 구 16	연 구 17	연 구 18
문항 1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2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3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4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5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6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7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8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9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문항 10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합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Y=예, N=아니오, ?=무응답

## IV.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상실의 경험에 관련 질적 메타분석을 통하여 부모상실에 대한 기존 자료를 넘어선 의미를 발견하며 새로운 해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는 표 3과 같다. 부모상실과 관련한 질적 연구는 2007년을 시작으로 최근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은 내러티브 1편, 사례연구 1편, 현상학 10편, 근거이론 1편, 포토보이스 1편, 비교분석 1편, 생애사 연구 1편, 문화기술지 1편, 질적 연구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은 18편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 수는 1명에서 23명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분석 대상 연구의 기본 정보

번호	저자 (연도)	대상	주제	연구방법	참여 인원	결과
1	황종인 김영근 (2018)	13세 ~18세	비행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과 모상실 후 적응과정에 대해 탐색	현상학적 연구	10명	15개의 구성요소와 35개의 하위구성요소
2	서청희 이성규 (2019)	20세 ~22세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을 탐색	내러티브 탐구	4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 4가지 범주

3	박영희 김영근 (2022)	15세 ~18세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상실 이후 경험 및 삶에 의미	현상학적 연구	10명	9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 도출
4	서칭희 김경미 (2017)	15세 ~19세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 탐색	포토 보이스	4명	2개의 대주제와 8개의 하위주제
5	기경희 김광수 (2016)	13세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한부모 가정 아동의 회복탄력성 특성 분석	현상학적 연구	10명	4개의 핵심적 구성요소
6	김정남 (2015)	13세 ~15세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외상경험	현상학적 연구	5명	10개의 구성요소와 38개의 하위구성요소
7	서칭희 이성규 (2021)	20세 ~22세	청소년기 자살로 부모를 상실한 유가족의 외상 후 성장과정 탐색	현상학적 연구	4명	4개의 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구성요소, 21개의 의미단위
8	김기화 양성은 (2016)	9세 ~17세	부모 이혼을 경험한 자녀의 부자가족으로의 적응	자문화 기술지	14명	4개의 주제
9	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21세 ~24세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	현상학적 연구	6명	8개의 공통주제
10	최경일 (2007)	14세 ~16세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관계	현상학적 연구	6명	4가지의 주제와 12개의 하위범주
11	임춘희 고현 (2021)	13세 ~18세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가족생활 경험	사례연구	6명	5개의 주제와 18개의 범주, 40개의 의미단위

12	박현정 이기연 (2015)	12세 ~19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현상학적 연구	10명	3개의 본질과 8개의 구성요소
13	최정경 (2013)	16세 ~18세	이혼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경험	현상학적 연구	6명	6개의 구성요소와 19개의 하위구성요소
14	이미현 하 정 김인규 (2019)	15세 ~22세	아버지와 사별한 청소년 자녀의 적응경험	근거이론	9명	124개의 개념, 52개 하위범주, 23개 범주
15	정미경 (2015)	23세	부친과 사별한 부모가족 만의 삶과 적응	생애사 연구	1명	3개의 주제
16	이명훈 (2022)	15세 ~19세	이혼 가정 기독교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 경험	현상학적 연구	6명	3개의 주제
17	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11세 ~13세	이혼가족 아동기 자녀의 부모 이혼에 대한 경험	지속적 비교	23명	5개 영역에서 11개 범주와 26개 개념
18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9세 ~14세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을 이해	현상학적 연구	11명	7개의 주제

## 2. 청소년 부모상실 경험

본 연구에서는 Noblit와 Hare(1988)의 7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상실의 경험을 3단계로 구분한 후 7가지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에서는 절망의 밑바닥,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명명하였다.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에서는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으로 명명하였고,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에서는 현실에 존재하기, 미해결과제로 명명하였다.

분석대상 연구들의 구체적인 하위범주 분류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제분석 결과표

범주	구성요소	하위요소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	절망의 밑바닥	충격과 혼란스러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의 분노와 원망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현실적인 후회감 속 죄책감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일상의 제한된 돌봄과 역할 변화, 생활상의 어려움 ‘괜찮은 척’ 살면서 상실에 대한 억압으로 느끼는 공허함
		평범한 일상에서 지속되는 상실감 새로운 가족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사회적 편견의 두려움 위축된 대인관계와 신뢰의 어려움
		부모나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고 자기의 감정은 숨김 공감 없는 위로로 인한 상처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부모 상실 후 극복 대처 과정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전문적, 자조모임, 정부기관 등의 외부 자원의 도움 상실을 대처할 것에 집중 남겨진 가족간의 결속감
		부모-자녀와의 친밀감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자기 존재의 무가치감과 무력감으로 인한 자해, 자살 시도 가출, 폭력, 비행 등 외현화 문제행동 인터넷 게임 과몰입과 우울감 호소
		자기성찰로 통한 현실 수용 상실에 대한 의미재구성으로 자신의 강점 발견
부모 상실 후 성장 과정	현실에 존재하기	상실대상과의 관계 연결성 지속

미해결과제	적극적 대처로 삶의 주체자 전환
	삶에 대한 희망적 사고
	문제 발생 시 소극적 회피 대처
	매번 지속적인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는 적응의 성장통
	부모와의 관계처럼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부모에 대한 애증의 마음	

청소년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1차 구성을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 부모 상실 후 극복 대처 과정, 부모 상실 후 성장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한 구성요소로 절망의 밑바닥,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현실에 존재하기, 미해결과제 총 7가지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를 파악하여 개별 질적 연구물 간 해석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분석대상 연구들 간 해석**

구분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		부모 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	
	절망의 밑바닥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현실에 존재하기	미해결과제
			○	○	○		
연구 1	○	○	○	○	○	○	X
연구 2	○	○	○	○	○	○	○
연구 3	X	○	○	○	○	○	○
연구 4	○	○	○	○	X	○	○
연구 5	X	○	○	○	X	○	○
연구 6	○	○	○	X	○	X	X
연구 7	○	○	○	○	X	○	○
연구 8	○	○	○	○	X	○	○

연구 9	O	O	O	O	X	O	X
연구 10	O	O	O	O	X	O	X
연구 11	O	O	O	O	X	X	O
연구 12	O	O	O	O	O	O	O
연구 13	O	O	O	O	O	O	O
연구 14	O	O	O	O	O	O	O
연구 15	O	O	O	O	X	O	X
연구 16	O	O	X	O	O	△	X
연구 17	O	O	O	X	X	X	X
연구 18	O	O	O	O	O	O	X

○ : 관련 내용 있음, △ : 관련 내용 부분 또는 일부 있음, x : 관련 내용 없음



### 3.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

부모 상실로 겪는 어려움에서는 크게 상실 후 절망의 밑바닥과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3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이는 각 범주의 세부 내용에 따라 13개의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먼저 절망의 밑바닥에서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고통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같은 상실을 막을 수 없었던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한 퇴행으로써 무력감을 느끼며 자기존재 이유의 무가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현실 속에서 양육자가 힘들어하는 것이 자신 때문일 것이라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이킬 수 없는 삶에 대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 절망의 밑바닥

충격적 혼란스러움으로 인한 고통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끼며 과거의 후회 속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자기존재의 무가치감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충격과 혼란스러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 낯설고,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른들이 우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때 일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저희 집 숟가락, 젓가락 원래 아빠 계셨을 때는 숟가락 모양이 저런게 아니었어요... 그니까 꽃무늬였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숟가락은 그냥 뒤편에 잘 있고... 그릇도 네 개에서 세 개로 줄어들고 다 하나씩 줄었어요. 저희 그릇도 다 바꿨어요.” (서정희, 김경미, 2017)

“그때는 누구랑 살게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걱정되고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혼란스러웠겠죠. 누가 자식들을 맡고 뭐 어떻게 키우고 해야 하니까. 저희가 없다면 그냥 따로 살면 되지만 저희가 있으니깐. 돌이잖아요. 누가 맡아야 될지, 그런 고민이 컸을 것 같아요.” (임춘희, 고현 2021)

###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의 분노와 원망

“엄마가 혼자서 이제 돈도 벌고 해야 하니까 막막하고, 아빠가 원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남, 2015)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저도 친구들이랑 놀러도 많이 가고 싶고, 예쁜 옷도 많이 사고 싶고, 친구들처럼 화장품도 사서 화장도 하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엄마가 힘들다, 죽겠다. 그런 말 하는 거 들으면 죄송하다.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지 싶은 원망도 들어요.”(정미경, 2015)

“이런 거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냐고, 원망했어요.” (황종인, 김영근, 2018)

“엄마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그러니까 오기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냥 엄마 없어도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원망스러웠죠. 그러니까 엄마를 진짜 많이 미워했었어요.”(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버린 이유가 달라져서 처음엔 돈 벌러 간다고... 지금은 아빠 때문이라고.... 화가나요.”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맨날 울었어요. 아빠한테 엄마랑 왜 헤어졌느냐고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할 나이라고 원망하며 울었어요.”(이명훈, 2022)

###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슬픔과 그리움

“엄마랑 살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것을 차 안에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슬퍼서 울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임춘희, 고현, 2021)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얼굴도 궁금하고, 다 궁금하고, 엄마하고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싶어요.” (최정경, 2013)

“아빠가 되게 많이 좋아해 주었는데 그걸 그만큼 채워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진짜 이 상황이 싫고 쓸쓸했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그냥 항상 방에 들어가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옆에 왜 아무도 없지 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항상 이렇게 막 돌이켜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서청희, 이성규, 2021)

### 현실적인 후회감 속 죄책감

“부모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면 지금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딴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실현된 거니까..”(김정남, 2015)

“아빠 혼자서 일하고 저희 키우면서 맨날 아침에 밥 차려 주실 때 가끔 나도 누가 밥 차려 주는 것 한번 먹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신 것 같아 맘이 울컥하고 미안했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제가 그때 사춘기라서 방황하던 때라 아빠 말도 안 듣고 못되게 굴었어요. 어디 놀러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랬는데.....일요일 아침 7시쯤 엄마한테 전화 받고 병원 갔는데 아빠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아빠가 쓰러진 그 전날도 저한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제가 속 썩여서 아빠가 그렇게 아픈 것 같고, 너무 죄송했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유○○는 ‘시원하다’라고 감정 카드를 뽑았는데 그 이유는 부모의 이혼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렇다고 대답함.”(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 나.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이 바뀌어버린 현실에서 부모 상실로 인해 생긴 역할 공백으로 인한 가중된 역할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힘든 과업으로 제한된 돌봄으로 혼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사, 전학, 주 양육자 변경, 가족과의 의사소통 부재와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으로서 발달 특성상 학업을 수행하는 상황에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생활공간이나 환경이 바뀌고 진로 선택에 있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는 등의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미래의 막연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실에 대한 감정이나 결핍감을 표출하지 못하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공허감을 느낀다. 또한 남겨진 부모 감정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육 부모의 외로움으로 인해 이성 교제를 찬성하며, 비어 있는 부모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가족을 원하는 안정된 관계를 희망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육 친부모가 똑같은 실수로 인해 또다시 상처받을 걱정과 재혼으로 인해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에 대한 불안, 또 다른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 사별, 비양육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등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상의 제한된 돌봄과 역할 변화, 생활상의 어려움

“이제 아빠가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전처럼 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도 좀 작은 데로 이사를 가요. 오히려 이사 가는 것은 좋아요. 그 전 집이 좀 넓었거든요. 썰렁하기도 했는데, 별 불만은 없어요.” (김정남, 2015)

“아빠랑만 있으니까 제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집안일을 하고 저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는 문제죠. 운동을 계속하고 싶으니까.” (김기화, 양성은, 2016)

“아빠가 안 계시니까 확실히 제가 뭘 사거나 할 때 자꾸 경제적인 걸 생각하게 되고, 이걸 사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안 그랬는데 친구랑 놀러 가서 돈을 쓰게 되더라도 조금 생각해보고 그래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집안 돈 걱정도 항상 하게 돼요. 난 빌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엄마는 계속 빌리게 되는 거고... 내가 삼촌 돈 있어? 하는데 삼촌도 수금이 안 돼서 없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막 수치스러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정미경, 2015)

“저 혼자 일어나야 돼요. 아빠는 바빠서 그리고 누나는 저 보다 일찍 나가요. 여기 오기 전부터 혼자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누나가 깨워줬어요. 학교에 지각한 적도 몇 번 있고, 지각하면 뭐 학교 가서 혼나죠. 지각한 적 몇 번 있었어요.”(김기화, 양성은, 2016)

“학원을 한 번도 다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내 동생은 너무 한 번쯤 다니고 싶어요. 애들이 다니기 싫다고 하는데 궁금하고 그래서.”(최정경, 2013)

“원래 아빠가 있었을 때 잘 많이 놀아주셨는데 이젠 같이 놀 사람이 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형이랑은 같이 남자니까. 엄마하고 다 같이 놀러 가는 것이 적어진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다 같이 일해야 되니까 엄마도 회사 다녀가지고 주말에 힘드니까 주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임춘희, 고현, 2021)

## 팬찮은 척 살면서 상실에 대한 억압으로 느끼는 공허함

“그때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거든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직은 그게 그때는 못 받아들여서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팬찮냐고, 그런데 저는 ‘팬찮아요.’ 이런 식으로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힘든 게 나타났던 것 같고.” (서청희, 이성규, 2019)

“그냥 늘 똑같은 패턴으로 말 안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지내는 거 그게 습관이 돼버려서 계속 그렇게 대처했던 거 같아요.” (박영희, 김영근, 2022)

“친구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또 팬찮은데 집에 들어오면 좀 다시.. 엄마도 밖에 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니까 혼자 있으면 다시 우울해지고. 혼자 있을 때 방문 닫고 울어보기도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기도 했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들어오면 엄마가 먼저 반겨주거나 제가 먼저 들어오면 OO이 일찍 왔네 그러면서 그런 재미로 살았는데... 그날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도 안 들어오고... 엄마가 나간 날 혼자였어요.” (이명훈, 2022)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저는 가족들이 안 놀러 가고, 다 각자 일을 보거든요. 아빠는 아빠 따로 할머닌 할머니 따로 그때가 외로워요.”(최정정, 2013)

“엄마가 있다가 없다 보니까 보살핌이 덜 한 거? 옛날에는 옷을 예쁘게 잘 입고 다녔다면 아빠와 할머니하고 사니까 취향이 좀 그래서 좀 덜 예쁘게 입고 다니고 그랬죠.”(임춘희, 고현, 2021)

## 평범한 일상에서 지속되는 상실감

“초등학교 입학식 할 때나 그럴 때 저 혼자 가고 그랬었거든요... 방학할 때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데리러 오는데, 저만 혼자여서 쓸쓸하고...”(황종인, 김영근, 2018)

“그 친구 어머니께서 국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녁으로 먹으라고, 국수를 해주셨는데 그걸 먹으면서 이 국수, 아 약간 우리 엄마도 이런 면 요리 잘했는데, 스파게티 같은걸 잘 했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친구 아주머니, 어머니보다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더 맛있는데, 아, 엄마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좀 친구가 부럽다.”(서청희, 이성규, 2019)

“다 같이 여행 갈 때, 그리고 친구네 집 놀러 가면 가족 다 같이 있는 거 보면 부러워요. 다른 가족들은 다 좋게 사는데...”(김기화, 김광수, 2016)

“학교에 부모님이 와야 할 때 부모님하고 상담하고 이럴 때 근데 저희는 아무도 못 오니까, 운동회 때 혼자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부모님 안 오고, 그때 완전히 슬펐고 엄마가 미웠어요.”(최정경, 2013)

## 새로운 가족 변화에 대한 양가감정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소개하고, 저희한테는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아빠와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최경일, 2007)

엄마가 정신적인 지지자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느끼는 불안감이 조금은 더 해소될 거 같아요.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자식과 애인은 다를 테니까요. (임춘희, 고현, 2021)

“다시 이혼한다거나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 또 이별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했을 때 힘드실 걸 아니깐 그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고 음...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시길 않을까 안 그러실 것은 알긴 하는데 걱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

는 거니깐.” (임춘희, 고현, 2021)

#### 다.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마지막으로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서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의 두려움으로 인해 위축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공감 없는 위로로 인한 상처와 평범한 일상 속 상실감의 연속을 느껴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일상을 견뎌내며 가지는 공허함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모 부재로 인해 겪어야 하는 상실감의 연속에서 유치원 재롱잔치, 학교 행사로 인해서 창피함과 외로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견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타인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되는 반응들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부재 이유로 비난받거나 면죄부를 받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과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로 인해 자기 노출을 최소화하여 관계에 손상을 주지 않거나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관계 형성을 보였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는 부모의 불화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툼들 지나치게 싫어하고,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였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쉽게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가 민감한 시기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혼에 대한 인식은 수용적이면서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들은 어른들, 친구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위축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시선에 대해 잠재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편견의 두려움

“가정환경에 대해 털어놓은 친구가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요. 그냥 대충 넘겨요. 아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냥 뭔가 긴장돼요. 긴장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기경희, 김광수, 2016)

“다른 사람이 놀리진 않는데 뭔가 조금 그래요.... 웬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좀 뭔가 달라요.”(박현정, 이기현, 2015)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거 그걸 들킬까 봐 되게 불안했어요. 우리 집에는 아빠가 같이 있지 않다는 걸 들키면 되게 창피하고 울고 싶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엄마랑 둘이 사는 건 창피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걸 특수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울면 엄마도 힘들 테니까 그냥 학교에서 아빠랑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걸 최대한 숨기느라 애썼던 것 같아요.”(임춘희, 고현, 2021)

“그니까, 엄마가 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든지 암으로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으면 저는 학교를 자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다 알리고 장례식도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자살로 돌아가셨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저는 도저히 학교에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알리기가 힘들었어요.”(서청희, 이성규, 2021)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거의 다 부모님하고 사니까... 한명은 원래 왕따였으니까.. 저는 애들하고 친했던 적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할머니랑 사는지 알고... 뭐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학교 다니냐고...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학교 다니냐고 이렇게 말할 때 슬프고 공부도 하기 싫고 수학 시간에 잠만 자고...”(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저희 담임 쌤이 완전 무서운 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턱을 괴고 있었어요. 그때 엄청 화를 내셔서 놀랐는데 나중에 제 사정을 아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챙겨 주시고 화도 안 내고 그랬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변명같이 되는 게 싫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재는 한쪽 부모가 없으니까 저렇게 됐다 하는 게 되게 싫거든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막노동하니까, 너는 왜 엄마가 없냐.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 위축된 대인관계와 신뢰의 어려움

“사람을 쉽게 못 믿게 되는 거? 하도 주변에 버려지는걸 많이 봐서.” (박영희, 김영근, 2022)

“엄마, 아빠한테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고 어른들에게 잘 신뢰가 가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선생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엄청 안 좋아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힘들고 고민이 되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항상 부모님과 어디 갔다 이런 식인데, 저는 그냥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 할 말도 없고.”(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아무튼 사람들이 다 싫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편해요.”(김정남, 2015)

“온 가족이 함께... 음.. 돈이 많이 필요한데.... 돈 벌러... 엄마와 아빠가 따로 벌어야 빨리 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자꾸 얘기를 바꾸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주소희, 이정은, 권지성, 2009)

“남자친구 이상의 것을, 아버지 역할과 어머니 역할까지 해주길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요... 좋아하긴 했었지만, 사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단 저를 안 좋아하면 못 다가갔어요. 버림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 부모,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고 자기의 감정은 숨김

“무슨 일 생기면 나 혼자 생각해요. 그냥 혼자 해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게 편해요. 엄마도 힘든데 나 때문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아빠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면)(머뭇거림) 많이 그리울 거 같다. 엄마가 힘들시겠다. 이런 생각이.....자다 일어났을 때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보면 엄마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안쓰러워요.”(기경희, 김광수, 2016)

“엄마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많이 했는데, 슬프다고 해서 티를 내면 안돼요. 티를 내지 않았으나 마음으로는 아주 힘들었죠. 힘들거나 어려운 표현들을 아빠한테 할 수가 없었죠.” (황종인, 김영근, 2018)

“가뜩이나 학교에서 심각한 일도 많이 터졌는데 울고 싶은 건 나인데 엄마가 울고 있고 짜증내고 싶은 건 난데 엄마가 짜증을 내는거” (박현정, 이기연, 2015)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들고요. 가끔씩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멍때리고 있어요. 전화를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일하시니까 자기 전에 전화하려다가 엄마는 일찍 주무시니까. 그냥 하지말자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임춘희, 고현, 2021)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외롭고... 언니는 엄마랑 아빠랑 사는데... 섭섭해요.... ㅎㅎ..(웃음) 속상함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그래요.”(주소희, 이겨은, 권지성, 2009)

## 공감없는 위로로 인한 상처

“그니까 엄마의 존재를 완전히 그냥 나한테 밥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런 존재로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 엄마가 밥을 해주건 안해주건 간에 저는 굉장히 엄마랑 가까운 관계였고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였는데 ‘엄마가 없어도 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하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서청희, 이성규, 2019)

“솔직히 우리 가족 내에서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왜냐면은 아빠의 역할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가족으로 따지면 그렇게 없는데... ‘엄마 혼자 고생하니까, 니가 정말 열심히 해’ 니가 정말 엄마한테 잘 해야 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미경, 2015)

#### 4.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에서는 크게 우연한 관계의 경험과 심리적 위기의 유일한 도피처의 표현에 대한 요소가 도출되었다.

##### 가.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에는 보호자이며 소중한 한부모와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결손감을 느끼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겨진 가족들과의 결속력, 부모-자녀와의 친밀감, 친인척, 친구, 지인 등 의미 있는 타인들의 지지들이 있었으며, 기관이나 전문적인 도움, 종교로부터 영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오해를 해소한 참여자도 있었다.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적극적 대처 능력과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 긍정적 자아상으로 나타났다.

##### 의미 있는 타인들의 지지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다보면 힘든일이나 슬픈 일이 잊혀지는 편....친구가 없었으면 그냥 저 혼자 풀어나가야겠죠. 그런데..... 못할 것 같아요.” (기경희, 김광수, 2016)

“어. 동네에 저 말고 다문화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다 아는 이모분들이었는데 어, 한분은 그 소풍 현장 체험 학습날 때 아빠가 김밥을 못 싸주시니까 많이 말아 김밥 싸주셔서

저한테 준 적이 있고. 어 뭔가 음식 같은 것도 부담스럽지 않게 잘해주시고 저도 챙겨 주고 그랬어요.”(박영희, 김영근, 2021)

“중학교 때부터는 다 얘기했어요. 그런 거를... 정말 깊은 얘기는 고등학교때 친한 친구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아빠 쪽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삼촌이 많이 도와주세요. 아버지같은 존재예요.”(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네, 지금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 동안 살면서 아.. 사람이 그게 왜 친구들을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런 건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다 필요한 거더라고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처음엔 편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가라앉게 되고. 내가 도대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느낌이 제 존재감이 너무 안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엔 학교에 입학해서도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많이 사귄 생각이예요 지금은. (서청희, 이성규, 2019)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 두 세명도 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떨어져 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개네들하고 약간 공감대 그런 거 얘기하면서 그래요. 개네들도 나처럼 힘들다고 하고 가끔씩 엄마나 아빠를 만나고 올 때는 어땠는지 뭐 그런 거 얘기하면 다 저랑 똑같대요. 보고 싶은 것도 그렇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규칙적으로 만나고 어떤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고.”(임춘희, 고현, 2021)

“남자친구가 많이 지지가 되죠. 학교 자퇴를 제일 많이 말린 게 남자친구였고, 너는 나랑 같이 사귀면 네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지금이라도 헤어지자고 했을 때도 괜찮다고... 어쨌든 책값도 없고, 당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미경, 2015)

“선생님이 용돈도 조금씩 주시고,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어 계속 고모들이랑 살다보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어, 고모와 할머니가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힘든 일 있을 때도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항상 저희를 먼저 생각해주는 것

같아요.”(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주일에 집에 있는 거 보다 어렸을 때 같이 이모부 따라서 갔던 게 더 좋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더 허전하게 빈자리 느낄 새도 없이 많이 다녔거든요. 이모랑. 여행 같은 것도 가면 같이 갔었고. 많이 다녔어요. 이혼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후에 다른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이런 거.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잘 대처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받쳐줬죠, 환경이.” (이명훈, 2022)

### 전문적, 자조모임, 정부 기관 등의 외부 자원의 도움

“그런 모임이 있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저도 좀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런 모임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는데. 되게 거기 가면은...(하지만) 자조모임 갔을 때 딱 제가 느낀 게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힘이 됐던 것 같고.” (서청희, 이성규, 2019)

“부족한거나 그런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기에서 워낙 잘해주시니까. 여기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죠.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들로 보면 회복하는 장소요.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서 밥 먹고 채워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도 일 나갈 사람은 일 다니고 하니까 돈이 모이게 되고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는 곳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심리적으로도. 부끄러운 게 아닌 거 같아요.”(김기화, 양성은, 2016)

“센터는 지역 아동센터, 야간 활동도 했었는데 할머니 들어오시는 시간 맞춰서. 학업은 공부나 이런 도움. 음, 센터에서 주로 센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박영희, 김영근, 2021)

“교회가 도움이 되었죠. ○○목사님이 교회에 소속되신 분이니까 멘토 역할, 그리고 여자 친구의 대화가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명훈, 2022)

### 상실을 대신할 것에 집중하기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상이 흘러가요. 억지로 운동하거나 노는 건 아닌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면 재밌고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러면서 지낸 것 같아요.” (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학교프로그램 가장 대개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월화수목 방과 후랑 야자 다하고 있고요. 금요일에 영어 멘토링하고 있고,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하는 논술 하고 있어요.”(최정경, 2013)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듣기를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오늘 있었던 일기 쓰거나 그런 거를 해요.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달력에게도 쓰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는 건 그냥 재밌더라고요. 반성도 하고 나에게 칭찬도 해주고 해요.”(임춘희, 고현, 2021)

“가정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많아요.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그런 작품들 읽어보면 가정적 문제를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상황과 비슷한 부분을 합리화 시키거나 그러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매우 편안해졌어요.” (이명훈, 2022)

### 남겨진 가족 간의 결속감

“아빠는 뭐... 약간 게임용어로 하면 ‘탱커’라고 할 수 있어요. 든든하게 앞에서 막아주고 버텨주고, 보호해 주고, 받쳐주고 하는 그런 존재,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는 우리가 그냥 전부래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 슬프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계시지 않아도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없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임춘희, 고현, 2021)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음.. 그리고 되게 감사하죠. 저를 저렇게 챙겨 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밖에 없다. 가족은 꼭 필요한거요. 가족이 없다면 아마 우울증 걸리고 난리 났을거 같아요. 특히 아버지요.”(김기화, 양성은, 2016)

“남은 가족이죠. 가족이 있으니까 그 자체로 힘이 되죠. 슬프긴 해도 제가 뿌리 채 뽑힌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남은 가족 없이 나 밖에 없을 때 그 땐 뿌리가 흔들릴 것 같아요.” (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동생을 내가 책임져야겠다는 맘이 있어요. 뭔가 못하면 도와주고 싶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성공하면 엄마 여행도 보내드리고 \*\*이한테(여동생)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고 싶어요.”(기경희, 김광수, 2016)

“엄마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강아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별로 할말이 없어도, 어... 누나 애 오줌 샀어. 애 셋졌어? 밥 먹었어? 엄마도 힘들면 뭐 엄마 뭐 어쨌어. 힘들었어. 엄마가 제일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돼서 기뻐어요.” (정미경, 2015)

근데 어렸을 때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막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부모님들 오잖아요. 그때 큰엄마랑 큰아빠랑 다 왔었어요. 우리가 체육대회 하면은 그 자리에 다 왔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데서는 힘든 거 없었거든요. 방학 때도 큰엄마가 막 우리 방학 때마다 놀러 데려가고, 바닷가 같은 것도, 아빠는 못가니까... (이명훈, 2022)

## 부모-자녀와의 친밀감

“제가 뭘 해 볼 수 있게 된 게 엄마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뭘 하려고 할 때 ‘아 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일단 해보되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그니까 엄마가 편히 제 편을 들어줘서 가족들이 삼촌이나 할아버지나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할 때도 엄마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해서 엄마 덕이 큰 것 같아요. 엄마가 편을 들어줘서 용기 내서 해 본 거니까.”(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이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가족의 유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상에는 엄마고 옆에는 없지만 늘 응원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에요.”(임춘희, 고현, 2021)

“아버지는 항상 오시면 뭔가를 해주시려고 해요. 먹을 거든 용돈이든 최대한 뭐를 해주

시려고 그래요. 매일매일 ‘사랑한다’ 문자 전화 계속 했어요.”(최정경, 2013)

“부모님이 친하고, 지금도 놀러 갈 때나 외식하러 갈 때도 함께해서 이혼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저희한테 항상 미안해했어요. 지금도 항상 걱정하시고 전화도 자주 하시는 게...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요. 대학 자금같이 큰 것들은 아빠가 다 해 주셨구요.. 용돈이나 생활비 같은 것은 엄마가 다 해주시고 그랬어요... 힘이 된 것은 친구나 언니들도 있었고,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엄마나 아빠.”(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재혼하시거나 이랬으면 또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안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더 연락도 자주 하고. 아빠가 또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보다 더 자주 보고 그래요.”(이명훈, 2022)

#### 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위기에 대한 극복 대처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상실로 인해 무기력감을 느껴 학교를 가지 않거나 자퇴, 적절한 교육적 자극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따라가기 버거워 학업 중도포기, 미래의 계획에 대한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나 필요한 순간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침묵하게 되면서 부모상실에 대한 좌절로 인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나 슬픈 감정을 자살, 자해 등 정서적으로 시도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현실적 어려움을 잊기 위한 방식으로 아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몰입을 하다가 중독에 이르는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부모상실을 겪은 청소년들이 버터내는 방식으로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또래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다보니 가출, 흡연 등 호기심으로 시작하거나 분노감정이 바깥

으로 향해 공격성으로 폭력문제를 일으키는 등 생각과 감정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간섭으로 인한 부모관계에서의 갈등 심화로 공격성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 자기존재의 무가치감과 무력감으로 인해 자해와 자살시도

“요즘엔 찰떡을 해요... 찰떡이 뭐냐면 몸 같은데를 칼로 긁는 거예요... 그게 하게 되면 좀 재밌고 집에서 아빠한테나 뭐 그런데서 받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 같아요. 그냥 하게 되요.”(최경일, 2007)

“제가 힘들었을 때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여러 가지고 힘들어서요. 그냥 부모님도 안계시고 구체적으로 힘들고,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힘들었고, 대학을 유지하는 것도, 졸업도 무사히 할 수 있는 것도 안 그러지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요. 그냥 그, 손목을 그었어요.”(서청희, 이성규, 2019)

“초등학교 5학년때 그때 제가 우울증이여가지고 그때가 내가 없어야 두 분이 안 싸우고 행복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힘들고 이제 또 죽으려고도 하고 하다가 자해를 했어요. 자기가 짐이 되고 이제 깊고 깊고 깊어지니까 태어나면 안됐던 사람 이렇게 되고 결론은 모든 일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맞고 이렇게 저렇게.”(박영희, 김영근, 2022)

“태어나서 버렸는데, 또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니 실망도 되고 나는 왜 이런 데 태어나서 이리 살아야 되나하고 유서 같은 것 써놓고 자살시도를 해보고 식칼 들고 대고만 있다가 무서워서 안했거든요. 또 아버지 돌아가신 바닷가에서 저도 그렇게 안 좋은 그것 하려고 했는데, 한 겨울에 바닷가에 뛰어들기도 겁나고 그 당시 마음은 죽고 싶었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나를 내버려 뒀음 좋겠어요. 건드리지 않고 그냥 놔 두면 좋겠어요. 학교도 가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김정남, 2015)

## 가출, 폭력, 비행, 학교 부적응 등 외현화 문제행동

“저는 결국에는 저는 그러니까 그 학교, 다음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생들, 선생님들 다 속이고 그러고 다닐 수 도저히 그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다 이야길 하고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했고, 수능도 안봤죠. 그때 중단을 했었고 저는 재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도 재수학원도 다녀왔고, 제가 입시 미술, 제가 미술도 전공하려고 했었거든요. 입시미술학원도 다시 다녀봤었는데 집중도 안되고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뒀죠.”(서청희, 이성규, 2019)

“뭐 아빠가 되게 원망이 났었을 수도 있으니까? (왜 원망이 될까?) 그냥 뭐..왜 안 오시냐..(중략) 그런데 또 뭐 괜찮아졌어요. 근데 또 어떤 애 한 마디로 그런 게 죄다 깨졌죠. (어떤 한 마디였어?) 난 이번 주 일요일에 아빠랑 야구 보러 간다~ 딱 이 말 하나로 그 뒤에 있는게 죄다 생각나가지고 되게 속상했죠. 그때부터 이랬...을수도...(중략) (그 이후로 OO가 좀 변했어?) 그렇죠. 지나가는 애들 막 툭 치고, 툭하면 싸움하고..”(이명훈, 2022)

“엄마의 잔소리 짜증에 내 방에 들어와서 인형도 던지고, 침대도 발로 차고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니 속이 좀 편해지더라구요.”(김정남, 2015)

“중학교 때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기숙사 있는 학교에 가고,...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호기심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다가 잘못해서 사기죄로 재판 받았어요.”(황종인, 김영근, 2018)

“좀... 욕하는 성질이 있어요. 놀 때 재미있게 노는데... 그냥 잘 안되면 혼자 막... 책상을 막 발로 차고, 친구가 건들면 친구도 때리고...”(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 인터넷 게임 과몰입, 우울감 호소

“제가 패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시간 외에 시간은 마음이 불안해요.”(김정남, 2015)

“내가 미쳤지 저가 그 때 엄마 돈으로 그것도 질렀어요. 백만원씩이나. 형한테 죽도록 맞았죠.. 어떤 게임이든 결과적으로 끝나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지도 않고 마구 질렀어요.”(박현정, 이기연, 2013)

“저는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안했어요. 스스로는 근데 이모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저는 입원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안주는 약을 먹고 있거든요. 개인병원은 아주 센 약을 안써줘요. 근데 저는 대학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저한테 맞는 약을 계속 바꿔가면서 독한 약을 먹어요. 저는 효과가 잘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약을 먹은 지 2년이 넘었는데 우울증이 많이 개선 된 것 같아요.”(서청희, 이성규, 2019)

## 5.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에서는 크게 현실에 존재하기와 미해결과제에 대한 요소가 도출되었다.

### 가. 현실에 존재하기

현실에 존재하기에서는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로 자기 경험의 재해석을 통해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통해 상실 대상과의 관계 연결성을 지속하며 다양한 경험으로 삶의 주체자의 전환을 함으로써 삶의 희망적 사고와 함께 의미있는 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기성찰로 통한 현실 수용

“이제 곧 성인이 될 터인데, 책임감 없이 행동했던 것을 뒤돌아보니까. 쪽팔리고 후회가

돼요.”(황중인, 김영근, 2018)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난 나고 나의 일부인 가족이 하나 없는거다. 나는 나니까 내 길 잘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그렇게 이해보다는, 이해라고 할 수 있나. 이해보다는 그냥 아버지의 삶이었고, 어쩌면 그걸 내가 막 강제할 수 없는 거고. 본인이 포기하고 싶으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남아 있는 건 아니길 바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책임감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이해는 할 수 없다, 다만 존중한다.”(서청희, 이성규, 2019)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발전을 해야죠. 똑같은 부모로 남고 싶진 않아요.”(박영희, 김영근, 2021)

“요즘에 드는 생각은 아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어... 지금은 내가 이겨내야 하는 시련인 거 같아요, 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처음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생각하면서 계속 의지하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동생도 커가고 할머니와 같이 살다보니까 제가 안하면 할머니나 동생한테 피해가 갈 거 같으니깐 제가 될 수 있으면 다 할려고 해요.”(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부모이혼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인생을 스스로 극복하고 개척해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빠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성공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하사관 시험을 치려고요.”(황중인, 김영근, 2018)

“저희 아버지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었고 이렇게 해서 떠나간 건 아닐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살에 대한 책도 많이 봤고 죽음에 대한 책도 많이 봤는데 저 책이 가장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저런 걸

좀 읽으면 그나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읽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싶어서.”(서청희, 김경미, 2017)

“이게 자라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환경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후에 보면 저는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 안해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나가 되게 큰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꺼려하고 그런거고, 그냥 당당히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이명훈, 2022)

### 상실에 대한 의미 재구성을 통해 자신의 강점 발견

“좋게 미쳤던 것은 그냥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공감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고, 경험을 이야기 해줄 수 있고, 이 친구가 무엇이 힘들지 좀 더 공감해줄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좀 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기댈 수 있는 장소로써 작용해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아니었나 싶고...”(서청희 이성규, 2021)

“내가 이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 사람들 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정미경, 2015)

“그냥 지금 제가 이렇게 뭐더라 이런 가정에서 사니까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생겼고, 부모님이 다 있었으면 별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하고 계속 놀기만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다 계속 해주어서.”(최정경, 2013)

“엄마 아빠가 있어서 모르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랑 아빠 없으면 모르는 걸 발견한다랄까?”(박현정, 이기연, 2015)

“많이 느낀 게 내가 저 사람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정미경, 2015)

### 상실 대상과의 관계 연결성 지속

“외국 살다 와서 그때처럼 아빠가 어딘가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겁이 많은데  
힘든 일이 있거나 무서우면 아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겨내요. 아빠가 있으니까 날 무섭  
게 못해. 제가 확실히 겁이 없어졌어요” (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아빠 기일 날, 일하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꿈에 아빠가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아빠 생각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아빠는 여전히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나를 지  
켜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일할 때는 되게 어려워서 힘들고 사람도 대해야 되는 것도 모르  
겠고 힘들었는데, 그런 건 그냥 괜찮아 진 것 같아요.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 적극적 대처로 삶의 주체자 전환

“학교에서 교수님이 추천을, 대학과 설계 비전이라고 진로시간이랑 비슷한 시간이 있는  
데, 그 시간에 일자리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데는 굿네이버스나 아니면 복지관 이런 데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추천하시지만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막 0000(유가족 자조  
모임) 모임, 지금 하고 있는 모임처럼 모임을 주도를 해보고 여러 프로젝트 같은 것도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걸 제가 한 번 만들어도 보고 이런 거, 이런 게 진짜로 하고 싶은 것 같아  
요.”(서청희, 이성규, 2021)

“특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 할 때가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  
지 처했던 상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내 삶에 변화를 가지고 온 거  
죠. 그 환경에서 많은 것을 느끼는 거죠. 한국에서 있었던 것은 정말 행복한 시절이구나. 정  
말 거기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구나.”(정미경, 2015)

“영어로 자기를 3분 정도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가족이 소중하다는 거 얘기해 주고도 싶고 제 자신을 감추기도 싫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그 사실을 숨기다가 들킨 거구나 하는 게 싫어서 발표 때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하면서 울컥하고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도 편찮고 애들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게 해주었고 감사하다고 말해줘서 발표하기를 잘했구나 생각했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이제 답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일에,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고... 혼자 힘들거나 생각할 때 달리거나,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걷거나 하면서 답을 얻어요.”(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 삶에 대한 희망적 사고

“제가 아직 꿈이 많이 늘었거든요. 제 꿈이 뭔지 자세히 몰라서 생각하고 있는데 안정해졌어요. 하지만 10년 후 나는 지금처럼 웃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기경희, 김광수, 2016)

“집에 가면 와이프가 반겨주고, 씻고 나오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냐고 물어봐주고, 아이랑 같이 놀아주고 결혼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게 있어요.”(김기화, 양성은, 2016)

“애들이 아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되게 부럽죠.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저랬을텐데. 부러우면서도 나도 나중에 내 애들한테 잘해주면 되지 하고 다짐을 해요. 저는 그냥 건강하고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전까지는 유치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를 자살로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그런 쪽에 약간, 의료, 보건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잠깐 사회복지사가 꿈이었다가 어. 그 후로 구급대원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의 약간의 반대가 있어서 간호사로 마지막 꿈을 정했죠..”(서청희, 이성규, 2019)

“중학생이 되면 더 잘 하고 더 열심히. 아빠한테 잘 보이기 위해 잘하고 싶어요. 아빠한테 기쁨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기경희, 김광수, 2016)

## 나. 미해결 과제

미해결과제에서는 적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 권의 그리움과 감정과 문제해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회피 대처, 매년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평범한 일상의 성장통, 부모와의 관계처럼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타났다.

### 문제발생 시 소극적 회피 대처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기면 내버려 두는 편. 속상한 일 있을 때 아무 것도 안해요.”(기경희, 김광수, 2016)

“임대아파트인데 자전거 하나가 도둑을 맞으면 그런 사람부터 의심을 하는거예요. 그니까 저는 그런게 싫어서 그냥 꼭 굳이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게 되면 뭐 내가 뭐 이렇게 아니야 저렇게 아니야 이럴 건 없지만 굳이 제 입으로는 말하진 않아요.”(박현정, 이기연, 2015)

“사람은 그때 그때 생기는 걸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생긴 감정을 말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못 말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빠가 없어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박현정, 이기연, 2015)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워요. 친구들은 다 같이 어디 놀러가고 그러는데 저는 가족들이 안 놀러가고, 다 각자 일을 보거든요. 아빠는 아빠 따로 할머니는 할머니 따로 그때가 외로워요.”(최정경, 2013)

### 매년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적응의 성장통

“선거를 하면서 아들이 선거로 나왔는데 응원하는 걸 볼 때, 세월호 관련되어 본인들의 말씀이나 그런 걸 들을 때 좀 생각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부모님의 이야기, 나한테 자녀는 어땠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요.”(서청희, 이성규, 2019)

“아 같이 살았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힘든 건 만났다가 헤어지는거죠.”(임춘희, 고현, 2021)

“모녀분들이 여행 같이 다니고 길거리 같은데 같이 팔짱 끼면서 걷는 모습 볼 때 엄마가 지금 달려올 것 같은, 그런 쪽에서 적응이 안돼요.”(박영희, 김영근, 2022)

“엄마랑 찍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언니 옛날 폰에 보면 엄마 사진이 들어 있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폰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 폰을 가끔씩 켜가지고 엄마사진도 보고,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 중1이 되니까 공부의 양도 더 많아지면서 힘든 것이 더 몰려오니까 너무 슬프고...”(임춘희, 고현, 2021)

“어머니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계속 나고 또 친구들 어머니는 부럽고 애들은 엄마한테 성적표나 이런 것 때문에 혼나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 대개 싫다고 그러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부러워요. 엄마가 밥해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먹어 보고 싶고.” (최정경, 2013)

“저나 동생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왜 보통은 아빠 손잡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없으니까. 아빠가 안계시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되고. 또 동생도 크면 클수록 아빠를 찾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떻게 상황을 넘겨야 할지, 고민도 되고. 또 제가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서청희, 이성규, 2019)

“변화에 적응하는게 힘들어요. 아직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박영희, 김영근, 2022)

“아무래도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저랑 엄마밖에 없으니까 제가 버는 데도 그것이 모자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도와주고 싶는데 안되니까 그게. 저도 안되고 엄마는 엄마도 또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이미 빠져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엄마는 그게 안되니까 제가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저도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서청희, 이성규, 2021)

“아빠가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는 없는 거. 그게 제일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이미현, 하정, 김인규, 2019)

“그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갔던 장소라든지, 어. 그러니까 엄마랑 함께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르면 많이 정말 그리워요. 정말 엄마가.”(서청희, 이성규, 2019)

“안 잊으려고, 안 잊고 싶어요. 잊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계속 생각하고 싶은. 그래야, 그래야 웬지 살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가지고, 아직은... 아빠라는 그 존재를 생각만 하면은, 아빠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아직은 그냥 항상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아요.”(서청희, 이성규, 2019)

### **부모와의 관계처럼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렇게 될까봐 걱정돼요... 남자친구가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싸우는 게 너무 싫은데, 많이 다투니까.”(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해줄까. 이 남자도 언젠가 다른 여자한테 가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부러 통명스럽게 하고, 툭툭 씹요. 좋은 감정을 내색하지 않아요. 내가 이 남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 **부모에 대한 애증**

“애증의 대상이라고 해야 하나, 미워도 마냥 밋지 않고 또 좋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죽으면 그리워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임춘희, 고현, 2021)

“엄마하면 그냥, 나쁜 생각.....우리를 버리고 갔다는.....엄마가 우릴 버린 것 같이 느껴져요.”(기경희, 김광수 2016)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부모 상실 경험 과정에서 그들의 경험과 심층적 이해를 통해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내에서 KCI 학술지에 게재된 관련 연구를 준거기준에 따라 선정된 18편의 연구를 종합하여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 상실 경험 과정에 따라 참여자들의 경험을 분석하여 ‘절망의 밑바닥’,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현실에 존재하기’, ‘미해결과제’의 7가지 공통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결론 및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부모 상실로 겪는 종합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버린 현실로 인한 충격과 혼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변화에 대한 상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부모를 상실한 것에 대해 자기 탓을 함으로써 후회감 속 죄책감을 느끼고, 남은 부모에게도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 슬픔, 절망 등을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한쪽 부모의 부재로 여러 가지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낸다는 연구(기경희, 김광수, 2016)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청소년들이 부모 상실로 인한 충격과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힘들어 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대처의 상담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 별거, 죽음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와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비해 새로운 삶의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도록 의사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이지혜, 2018)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가족구조 변화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실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분석 내 사용된 논문 전반에서 사회적 시선과 편견의 두려움으로 위축된 대인관계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외로움 등 여러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민원홍과 손선옥(2017)의 연구에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은 개인의 기질적인 것보다는 발달 맥락적인 환경과 대인 관계적 요인의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회 맥락적으로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비정상 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법정 교육의 목적으로 사업장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의 내용에 한부모 가족을 포함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사회적 낙인효과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환경변화 및 초기대처 대응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적응 지원 서비스나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인 홍보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 상실 경험의 극복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환경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은 부모상실의 극복과정에서 부모의 지지기반, 남겨진 가족과의 결속력, 친구, 교사, 상담사 등의 의미 있는 타인들의 지지, 신앙생활, 정부의 지원이나 쉼터, 가족복지시설 자조 모임, 전문적인 도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였다. 이는 부모 상실 경험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지지, 위로, 공감을 받는 경우, 극복과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김민경, 2017)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어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남은 가족들과 양육 부모로부터의 상호 의지 및 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이는 상실로 인한 가족구조 변화에 의한 결핍에도 불구하고 남은 가족들의 지지가 있으면 이러한 상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가족지지가 아동,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행복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친구지지도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조은정, 2014)는 연구결과도 본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부모의 상실이라는 커다란 외상을 겪은 청소년을 위한 심리적 지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회복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임지연 외(2022)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알게 된 경로로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지인, 경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족 이외의 지지기반이 되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청소년에게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관련 홍보가 필요하며, 비슷한 가족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 자조 모임, 멘토 교육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이 긍정적 자아상과 문제해결 방식의 적극적 대처 역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극복 대처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이며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지지가 있을 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류혜경(2019)의 청소년 외상 성장 관련 메타분석에서도 대

처 변인군 중 문제 중심 대처가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본연구에서 외상 사건에 대한 문제 중심적 대처가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적극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Forsythe & Compas, 1987; Terry, Tonge, & Callan, 1995)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부모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모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 중 분노와 무력감은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족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런 경우 문제해결의 한계를 느껴 무력해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표출하는 자체를 힘들어한다. 그로 인해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부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우울, 신체화, 인터넷 공격성, 비행, 자퇴, 인터넷 과몰입, 학업 미수행 등 외현화 문제행동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분노가 반드시 비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론가들은 분노가 공격행동 및 비행 행동의 주요 유발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안정미, 안권순, 2012; 정주영, 2014; 정혜경, 2016; Feindler, 1989). 이는 부모상실감은 개인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영향을 미쳐 때때로 심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연구(김선아, 2011; 주소희, 2007; Wicks et al., 2005)와 일맥상통하며, 청소년들은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정서적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기경희, 김광수, 2016)에서도 확인된다.

셋째, 부모 상실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현실 수용과 숨은 자기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면서 내 안의 참 나를 찾아가는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 필수적인 주요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의미감을 형성할 수 없을 때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Frankl(1965)은 의미 추구가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부모 상실을 경험하는 성장 과정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삶의 의미 재구성은 기존의 적응을 뛰어넘어 개인의 적응이나 성장 원인 분석력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외상사건에서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완충 역할을 하는 자원으로 삶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을 발견한 김정수(2020)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기 삶에서 의미 추구 또는 의미발견에 대해 적절한 개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최승미, 2008).

하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변화에 적응하면서 겪는 자신의 내적 미해결된 감정들과 행동 속 디스트레스가 공존하여 여전히 응어리진 아픔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 좌절과 성장이 순환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부모 상실 경험으로 인한 미해결과제는 환경변화로 겪는 어려움으로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장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수용해야 하는 삶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로 인해 발달 단계마다 주어지는 과업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맞닥뜨려 뒷걸음질 치는 시기가 오기도 한다. 이는 부모 상실을 경험한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발달 특성에 맞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돌봄 사업, 보호 사업, 정신건강 사업 등에 있어 개인정보, 담당 지역, 학교 등의 이유로 부처별, 대상 연령별 사업으로 분절되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된다는 한계(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를 가지고 있어, 긴밀하게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부모에 대한 애증의 마음 또한 성장과정에서 미해

결과제로 표현되었는데, 부모 상실을 경험한 후 남아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취약해져 혼자 극복하기 위해 혼란스러움에 직면하게 된다. 부모 상실한 청소년 중 불충분한 정서적 보살핌 속에서 지속되는 상실감으로 부모와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최경일, 2007), 심리적 과업 성취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서정아, 김혜원(2013) 등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남은 가족 구성원이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서적 지원에 시간 투자하여 관계지속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 간 교류, 유대감 형성, 규범 등 가족 관계적 측면을 고려해 관계 향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강연, 교육 위주가 아닌 체험활동 위주의 다양한 활동의 주말 가족여가집단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부모 상실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3가지 차원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상실을 겪은 청소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탐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질적 메타분석의 연구가 늘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을 관련해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 부모 상실 경험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질적 메타분석은 전무한 상황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 검토한 Sveen과 Walby(2008)는 설문지 등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청소년 부모 상실의 고유한 경험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를 검토하는 질적 메타분석을 제안하였다.

둘째,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 상실 경험에 대한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주변의 지지자원

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적응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 상실 후 겪는 심리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대처방식과 주변의 지지자원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여러 방면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청소년들의 독특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예컨대 부모 상실 청소년 대상으로 치료적 개입이나 서비스를 계획할 때 청소년들이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내적으로 상실한 부모에 대한 분노 정서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죄책감과 무력감이라는 정서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상실에 대한 분노 감정은 청소년들이 가족에게 가지는 영향력을 과대하게 추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과잉 의식하고 부정적일 것이라 가정하여 수치심을 경험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대인관계라는 자원으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사회적, 전문적인 지지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부모 상실 원인이 부모이혼, 질병으로 인한 예견된 사별과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별, 부모자살이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사별의 원인을 예견된 사별과 사고사, 자살 등으로 분류하여 질적 연구한다면, 남겨진 자녀의 개별적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 상실 후 한쪽 부모의 지지가 있으면 자녀들이 빨리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는데 부모 모두와 별거하거나 지지받지 못하는 상실가정 청소년들은 한 부모와 생활하는 자녀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 상실 자녀 중에서 한 부모와 생활하는 자녀들의 경험과 부모 모두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 상실 경험을 가진 청소년 대상으로 국내 학술지 18편 논문만을 분석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는 개별 연구의 질적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해외 문헌을 포함함으로써 좀 더 밀도 있는 질적 메타 분석이 이루어 지기를 제안한다.



## 참 고 문 헌

- 곽지영, 서미아 (2022). 자살로 부모와 사별한 자녀들의 외상 후 성장. **가족과 가족치료**, 30(4), 523-555.
- 기경희 (2014).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한부모 가정 아동의 회복탄력성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경희, 김광수 (2016).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한부모 가정 아동의 회복탄력성 분석. **한국초등교육**, 27(3), 15-36.
- 김경희 (2021a). 30대 성인들의 아버지 죽음 상실의 자기치유 과정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문화와융합**, 43(11), 887-904.
- 김경희 (2021b).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자살 사고로 상실을 경험한 중년남성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상담심리교육복지**, 8(4), 45-60.
- 김경희 (2021c).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사별한 20대 청년들의 삶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3(4), 23-53.
- 김기화, 양성은 (2016). 자녀가 경험한 부모 이혼과 부자가족으로의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Human Ecology Research(HER)**, 54(1), 83-96.
- 김대웅, 이순형 (2017).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 상실에 따른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과정. **청소년학연구**, 24(7), 111-140.
- 김명희 (2021).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공감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537-561.
- 김민경 (2017).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개념도 연구: 관계상실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한영주 (2020). 청소년기 모(母) 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 중년여성의 삶의 관점에서. **질적탐구**, 6(2), 93-130.

- 김선아 (2011).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 인과의 관계: 결혼가정과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6(3), 5-34.
- 김수진, 서한나 (2022). 비자살적 자해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탐구**, 8(4), 67-96.
- 김순례, 김병석 (2020).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청소년기 아버지 사별 경험이 성인여성의 성장에 미친 영향. **상담학연구**, 21(1), 93-123.
- 김용수, 이훈 (2020). ‘나 홀로 여가’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관광학연구**, 44(6), 211-232.
- 김유경 (2009). 부모 이혼을 경험한 시설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6(2), 251-270.
- 김정남 (2015). 부모자살을 경험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2(1), 183-201.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우울과 외로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김정수 (2020).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수산해양교육연구**, 32(1), 181-193.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최수정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 15-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순, 갈라노바딜노자, 아지조바 피루자 (2021).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상호문화소통과 문화적응**. 서울: 북코리아.
- 김영아, 변재원 (2016). 자살 유가족(suicide survivors)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43-63.
- 김영천 (2016). **교육용 경영시뮬레이션게임의 성공요인과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김순규 (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중단연구. **학교사회복지**, 32, 357-384.
- 김정환, 김성순, 이동훈, 함경애 (2014). 한국판 청소년용 성격강점 척도 타당화 연구. **재활심리연구**, 21(3), 433-452.
- 김춘경, 이수연, 최용용 (2005). 우울 및 자살 개입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1(1), 169-191.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 곽효정 (2002).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 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9(2), 171-199.
- 나장함 (2008a). 질적 메타분석에 대한 고찰: 교육과정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 탐색. **교육과정연구**, 26(4), 229-252.
- 나장함 (2008b). 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의 적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18(2), 135-158.
- 남수현 (2022). 애도 경험 및 애도 상담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 2011년~2020년 중심으로.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10(2), 7-27.
-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 남영옥, 이상준 (2009). 이혼가정 여부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청소년학연구**, 16(5), 121-142.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 뉴스엔미디어 (2023.01.14.). 음주운전으로 母 잃은 15세 금쪽이 “세상 무너져” 9개월째 칩거(금쪽같은)[어제TV]. <https://www.newsen.com/ne>

ws\_view.php?uid=202301132006302510에서 2023년 03월 13일 자료  
얻음.

류진아, 방은진, 신혜민 (2021). 상담자 소진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상담학  
연구**, 22(3) 239-273.

류혜경 (2019). **청소년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 메타분석**. 대구대학교 재  
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미  
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박미애, 김세경, 천성문 (2013).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 요인에 관한 메타  
분석. **재활심리연구**, 20(3), 627-652.

박선정 (2015). 관계 상실 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  
장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반추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0, 71  
-94

박선정, 정규석 (2016). 부모상실경험 대학생이 지각한 지지가 외상 후 성  
장에 미치는 영향: 가족탄력성, 의도적 반추, 적극적 대처의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8(2), 115-140

박영희, 김영근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0(3), 120-147. 제천: 세명대학교 인문사  
회과학연구소.

박현정, 이기연 (2015). 저소득 한부모 자녀의 삶과 발달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31(2), 105-139.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이  
화사회과학원.

박효실 (2002). **부모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은 (2015).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웹페이지 내용 분석을 통한 스미싱 탐지 방법.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 김혜원 (2013).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지영 (2002). 부모이혼이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년성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청희 (2022). 청소년기에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여성 유가족의 애도문화 경험과 외상후 성장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0(4), 32-63.
- 서청희, 김경미 (2017). 자살로 부모를 잃은 청소년의 애도 과정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를 활용하여. **청소년학연구**, 24(9), 55-83.
- 서청희, 이성규 (2019). 부모를 자살로 상실한 청소년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청소년연구**, 30(4), 97-129.
- 서청희, 이성규 (2021). 청소년기 부모자살을 경험한 유가족의 외상후 성장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1), 5-34.
- 송승훈, 김교현, 이홍석, 박준호 (2009). 한국판 외상후 성장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93-214.
- 송옥선, 김정희, 권혁철 (2008). 부모이혼을 겪은 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탄력성을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15-33.
- 신연순 (2008). 부모사별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정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성은 (2008). 부모 사별에 따른 대학생의 상실경험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9-49
- 양혜원, 전명희, 김희수 (2014). 부모 이혼에 대한 아동기 자녀의 경험: 지

- 역사회복지관 이혼가족 자녀 집단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2(2), 173-204.
- 연합뉴스 (2020.06.11.). 부모 이혼 뒤 홀로 살던 중학생, 사회복지사 덕에  
 목숨 구해(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76451063?section=search>에서 2023년 3월 24일 자료 얻음.
- 안정미, 안권순 (2012). 청소년의 분노정서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3), 267-292.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과 성격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우현주 (2012). **대학생의 부모재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명숙, 김남희 (2013). 대학생의 상실경험과 대학생활 적응관계에 대한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60-89.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3), 73-104
- 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의 애도경험이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9(1), 83-111.
- 윤운영, 유금란 (2018). 청소년기 상실 경험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5(3), 479-501.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6).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상담자의 보고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1) 89-120.

- 이명훈 (2022). 이혼가정 기독교 청소년의 가족해체 과정에서의 심리적 갈등 경험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3(2), 107-139.
- 이미현, 하 정, 김인규 (2019). 아버지와 사별한 청소년 자녀의 적응 경험. **상담학연구**, 20(1), 227-248.
- 이수민 (2022).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어머니의 사교육 실천의 장-아비투스 탐색**.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여진, 한경아 (2019).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동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 연구. **조형교육**, 69, 35-63.
- 이은봉 (2019). **미술치료사의 역전이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숙 (2017). 청소년의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의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2), 386-398.
- 이지혜 (2018). 부모 이혼 과정에서 의사표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3), 621-637.
- 이필금 (2001). **사별 편모 가정의 사회·심리적 자립방안에 관한 질적 접근**.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인사이트 (2019.12.28.). 친구 살해한 女 초등생 "부모님 이혼 소문낸 친구.. 극단적 선택하려다 살해하기로 결심". <https://www.insight.co.kr/news/260965>에서 2023년 3월 24일 자료 얻음.
- 임지연, 김정주, 한지형, 문세진 (2022).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지원 방식 재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춘희, 고 현 (2021).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가족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3), 483-517.
-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 이경은 (2011).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유연적 경험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49-74.
- 전미영 (2000). 가족 사별 후의 슬픔 경험, 가족의 강인성 및 관리자원과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0(6), 1569-1579
- 정미경 (2015). 한부모가족 만이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생애사적 접근.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3, 115-141.
- 정석진 (2017). 이혼가정 아동의 단기 놀이치료 사례.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0(1), 111-139.
- 정연옥, 이민규, 김은정 (2007). 이혼 가정 자녀의 유기공포 및 상실지각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171-188.
- 정주영 (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정현숙, 서동인 (1997). 편모가족의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 자원 및 심리적적응. **아동학회지**, 18(2), 163-176.
- 정혜경 (2016). 청소년의 외로움, 분노, 자살생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4), 89-99.
- 조선화 (2012). 한부모가정의 적응에 관한 연구동향: 질적 연구와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 487-513.
- 조성연 (2003). 한부모가족의 부모-자녀관계.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3(5), 33-56.
- 조은정 (2014).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7(1), 103-126.
- 주소희 (2004). 부모이혼 후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소희 (2007). 부모의 이혼과 자녀의 적응:부모자녀관계와 자아효능감 매

- 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0, 107-136.
- 주소희, 이경은, 권지성 (2009). 조손가정 아동의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0, 97-131.
- 주인석, 김명찬, 이현진 (2020).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질적탐구**, 6(2), 523-555.
- 지은, 유다은 (2019). 부모이혼을 경험한 청년기 성인의 대인관계 및 결혼관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1), 149-176.
-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적응유연성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유림 (2014). 사별 가족 연구 동향 분석 : 199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17(3), 134-141.
- 최경일 (2007). 한부모 가정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4), 145-168.
- 최규련 (2010). 가족환경과 학업 및 친구요인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28(6), 95-111.
- 최선재 (2011). **상실경험의 의미재구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승미 (2008). **외상 후 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희, 김현주 (2017). 부모상실 만이의 부모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성인초기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89-114.
- 최정경 (2013). 이혼한 아버지와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경험: Giorgi의 현상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20(12), 73-99.
- 최현아, 송현주 (2017). 청소년의 대인간 외상경험이 품행문제에 미치는 영

- 향. *한국청소년연구*, 28(3), 179-208.
- 한안나, 황희숙 (2023). 유아 창의성 교육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인지발달 중재학회지*, 14(1), 21-42.
- 황종인, 김영근 (2018). 비행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2), 317-339.
- 허윤영 (2012). 부모상실감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 탄력성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형미정 (2020). 경력상담자의 전문성 발달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구화 (2010). 상실로 인한 슬픔에 대한 효과적인 위로 사역.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7, 319-341.
- Amato, P. R., Loomis, L., & Booth, A. (1995). Parental divorce, marital conflict, and offspring well-being during early adulthood. *Social Forces*, 73, 895-915.
- Anderson, H., Mitchell, K. R.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resources for pastoral care*.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Balk, D. E., & Corr, C. A. (2002).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A review of research.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199-2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rns, D. M. (2010). *When Kids Are Grieving: Addressing Grief and Loss in School*. Newbury Park: Corwin.
- Cooper, H. M.(1989). *Intergration Research: A guide for literature reviews(2nd ed)*. Newbury Park: Sage.

- Fiorini, J. J., & Mullen, J. A. (2014). 슬픔과 상실을 겪은 아동·청소년 상담 및 사례[Counsel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grief and loss], (하정희 옮김),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6에 출판).
- Frankl, V. E. (1965). *The Doctor and the Soul: From Psychotherapy to Logotherapy*. New York: Vintage Books
- Freeman, S. J. (2005). *Grief and loss: understanding the journey*. Belmont, California: Cengage Learning.
- Forsythe, C. J., & Compas, B. E. (1987). Interaction of cognitive appraisals of stressful events and coping: Testing the goodness of fit hypothe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4), 473-485.
- Habermas, T., & Bluck, S. (2000). Getting a life: The emergence of the life story in adolescent. *Psychological Bulletin*, 126, 748-769.
- Harvey, J & Delfabbro, P. H.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in disadvantaged youth: A critical overview. *Australian Psychologist*, 39(1), 3-13.
- Hetherington, E. M. (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 M. Hetherington, (Ed), *Coping with divorce, single 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pp. 93-116). Mahwah, New Jersey: Erlbaum.
- Hetherington, E. M. & Kelly, J. (2002). *For Better or For Worse.: Divorce Reconsidered*. New York: W. W. Norton Company.
- Hughes, R., Clark, C. D., Schaefer-Hernan, P., & Good, E. S. (1994). An Evaluation of a Newsletter Intervention for Divorced Mothers.

- Family Relations*, 43(3), 298 - 304.
- James, R. K. & Gilliland, B. E. (2004). *Crisis Intervention Strategies* (Fifth Edition). Belmont: Thomson Brooks/Cole.
- Kerns, K. A., Tomich, P. L., & Kim, P. (2006). Normative trend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availability and utilization of attachment figures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5(1), 1-2
- Levitt, H. M. (2018). How to conduct a qualitative meta-analysis: Tailoring methods to enhance methodological integrity. *Psychotherapy Research*, 28(3), 367-378.
- Nelis, S. M., & Rae, G. (2009). Brief report: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2(2), 443-447.
- Noblit, G. W., & Hare, R. D. (1988).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 Paterson, B. L., & Canam, C. (2001). *Meta-study of qualitative health research : A practical guide to meta-analysis and meta-synthesis(Vol. 3)*. London: Sage Publication.
- Sandelowski, M., & Barroso J. (2003). Creating metasummaries of qualitative findings. *Nursing Research*, 52, 226 - 233.
- Sandelowski, M., Barroso, J. (2007).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Sandelowski, M., Docherty, S., & Emden, C.(1997).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0(4), 365-371.
- Sofka, C. J. (1997). *Loss History Checklist*. In J. D. Maanino (Ed), *Grieving days, healing days*, (p.20). Boston: Allyn & Bacon.

- Stern, P. N., & Harris, C. C. (1985). Women's health and the self care paradox. A model to guide self care readines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6(1-3), 151-163.
- Taku, Calhoun, Cann, & Tedeschi (2008). The role of rumination in the coexistence of distress and posttraumatic growth among bereaved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ath Studies*, 32, 428-444.
- Tedeschi, R. G., & Calhoun, L.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 Terry, D. J., Tonge, L., & Callan, V. J. (1995). Employee adjustment to stress: The role of coping resources, situational factors, and coping responses. *Anxiety, Stress and Coping*, 8(1), 1-24.
- Tyrka, A., Wier, L., Price, L., Ross, N., & Carpenter, L. (2008). Childhood parental loss adult psychopathology: Effects of loss characteristics and contextual factors. *Int'l Psychiatry in Medicine*, 38(3), 329-344.
- Wicks, S., Hjern, A., Gunnell, D., Lewis, G., & Dalman, C. (2005). Social adversity in childhood and the risk of developing psychosis: a national cohort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2, 1652-1657.
- Walsh, D., & Downe, S. (2005).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50(2), 204-211.
- Worden, J. W., & Silverman, P. R. (1996). Parental death and the adjustment of school age children. *Omega*, 33, 91-102.

Zimmer, L.(2006). Qualitative meta-synthesis: A question of dialoguing with tex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3), 311-318.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강재선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응용심리학과

요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을 주제로 한 질적 분석 논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물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2007년에서 2022년까지 KCI에 등재된 국내 학술지 18편이다. 선정된 문헌을 분석하여 청소년 부모상실에 관한 경험을 총 3단계로 도출하였는데 ‘부모상실로 겪는 어려움’,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어서 도출된 단계를 7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는데, ‘부모상실로 겪는 어려움’에서는 절망의 밑바닥, 일상 속 상대적 박탈감, 현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부모상실 후 극복 대처과정’에서는 운명적인 새로운 관계의 경험, 심리적 위기의 부적절한 도피행동, ‘부모상실 후 성장과정’은 현실에 존재하기, 미해결과제로 명명하였다. 논의에서는 도출된 요소와 진술문을 바탕으로 각 핵심 개념에 따른 청소년 부모상실에 관한 경험 과정을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상실 관련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 부모상실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고,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부모상실, 질적메타분석

부록 1.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 (2014) 문항지

번호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문항 1	<p><b>연구의 목적 진술이 명확하였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li> <li>· 왜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li> <li>· 목적의 타당성</li> </ul>			
문항 2	<p><b>질적 연구방법이 적당한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가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들 그리고/또는 주관적경험들을 해석하거나 밝히는 것을 추구하는지</li> <li>· 질적 연구가 연구목적에 다루기에 정확한 연구방법인가?</li> </ul>			
문항 3	<p><b>연구 목적을 다루기에 연구 설계가 적절하였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연구설계가 타당한지 (예: 연구자들은 사용할 방법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의논하였는가?)</li> </ul>			
문항 4	<p><b>모집 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는 어떻게 참여자들이 수집되었는지를 설명했는지</li> <li>·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본 연구의 목적에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상들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했는지</li> <li>· 모집에 대한 어떠한 토론이 있었는지 (예: 왜 몇몇 사람들은 참여자로 선택되지 않았는지)</li> </ul>			
문항 5	<p><b>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수집 설정이 타당한지</li> <li>· 데이터가 수집된 방법이 분명한지 (예: 포커스 그룹, 반구조화 면접)</li> <li>·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 방법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는지</li> <li>· 연구자는 연구방법들을 분명하게 했는지 (예: 면접 방법에 대해, 어떻게 면접이 수행되</li> </ul>			

	<p>있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주제 가이드를사용했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변경되었는지, 그렇다면 연구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는가?</li> <li>· 데이터의 양식이 명확한지 (예: 테이프 녹음, 비디오장비, 노트 외)</li> <li>· 연구자가 데이터의 충만도를 논하였는지</li> </ul>			
문항 6	<p><b>연구자와 참가자 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가 (a) 연구 질문의 구조화 (b) 표집과 지역 선정을 포함한 데이터 수집 중에 연구자의 역할, 잠재된 편견(선입견) 그리고 영향을 비판적으로 설명했는지</li> <li>· 연구자가 연구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변화에 대한 영향을 연구 설계에서 고려했는지</li> </ul>			
문항 7	<p><b>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가 참가자들에게 윤리적 기준 유지를 평가하는독자에 관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사항(설명)이 있는지</li> <li>· 연구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연구자들이 논하였는지 (예 : 동의와 기밀성에 관한 주제 또는 참가자들에 대해 연구 후 및 연구 중에 어떻게 그들이 연구의 영향을 조절할 것인지)</li> <li>· 윤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는지</li> </ul>			
문항 8	<p><b>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석과정에 대해 심층적인 기술이 있는지</li> <li>· 주제 분석이 사용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카테고리/주제들이 데이터로부터 추출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가?</li> <li>· 연구자는 나타난 데이터가 분석 과정을 보여주는 원래의 표본으로부터 어떻게 추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데이터가 결과들을 지지하기 위해 나타났는지</li> <li>· 모순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고려하였는지</li> <li>· 연구자는 설명에 대한 데이터 분석하고 수집하는 동안 그들만의 역할, 잠재된 편견(선입견) 그리고 영향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는가?</li> </ul>			
문항 9	<p><b>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가 분명한지</li> <li>· 찬반의견을 지닌 연구자들의 논쟁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 적절한 논의가 있는지</li> <li>· 연구자가 그들의 결과물의 신뢰성에 대해 논의했는지 (예: 삼각측량, 응답자의 인정, 한 명 이상의 분석가)</li> <li>· 결과물들이 본래의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는지</li> </ul>			
문항 10	<p><b>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가 기존의 지식 또는 이해를 구성한 공헌에 대해 연구자가 논하였는지(예: 관행 또는 정책과 관련한결과나 연구기반 문헌과 관련 있는지 고려하는가)</li> <li>· 연구가 필요한 새로운 영역을 확인하였는지</li> <li>· 연구자들은 어떻게 그 결과들이 다른 인류들에 적용 될 수 있는지 또는 연구가 사용될지 모르는 다른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는지</li> </ul>			